

전후 ‘근로대중’의 형성과 빈곤의 젠더화

- 정비석의 『민주어족』(1954,1955)을 중심으로 -

손혜민*

「차례」

1. 들어가며
2. 50년대 ‘산업전사’의 초상
3. 생산담론과 ‘근로대중’의 형성
4. 여성의 노동 배치와 빈곤의 젠더화
5. 나가며

〈국문초록〉

정전을 전후하여 담론 장에는 노동자를 ‘산업전사’, ‘반공전사’로 명명하는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염려했던 이승만 정권이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통하여 근로대중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움직임과 연동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연재된 정비석의 소설 『민주어족』에서 보여주는 ‘노동자’의 형상은 이러한 ‘근로대중’ 담론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홍병선’이 대변하는 ‘청년’-‘남성’-‘산업전사’는 ‘근로대중’ 담론에 내재한 ‘세대’와 ‘젠더’라는 두 가지 분할선을 드러낸다. 소설 속에서 ‘여성’의 노동은 가사 노동이나 저임금-단순-미숙련 노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남성의 성애화 대상으로 타자화 된다. 문제는, 이들이 타자화 되는 과정에, ‘빈곤’의 정치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다. 미혼의 여성들은 위태로운 유혹과 일탈의 대상으로 그려

* 연세대학교 강사

지면서, 저변에 놓인 ‘빈곤’의 문제를 비가시화 한다. 한편, ‘빈곤’은 미혼모, 미망인 등 ‘아버지’가 부재한 여성들로 육화되어 그려지기도 한다. 이 속에서 ‘빈곤’은 여성 일반, 사회의 문제로 추상되고, 여성은 불온한 것, 구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의미화 된다. 동시에 ‘빈곤’은 역설적으로 노동하는 남성-주체의 ‘덕성’을 증명하는 알리바이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대중’ 담론은 전후 한국사회가 표방하였던 근대적인 노동윤리를 그 핵으로, 노동자를 ‘산업전사’로 견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산업개발의 영웅서사”로 이어지는 개발-남성 중심의 거대 서사는 ‘빈곤’을 경유하여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빈곤, 근로대중, 산업전사, 여성 노동, 정비석, 『민주어족』

1. 들어가며

53년 8월, 문화종합지 『문화세계』 2호에는 <청년의 고민과 그 분석 해결 질의에 대한 지도자들의 태도>¹⁾라는 제목의 좌담회 기획기사가 게재된다. 지도자 측에는 이선근, 이송녕, 김석길, 고순덕이, 청년 측에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정태, 주동혜가 참석하고 있었다. 곽하신의 사회로 진행된 본 좌담회의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청년’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지도자 측’의 질타와, 이에 대한 ‘청년’ 측의 응대로 집약된다. 이른바 ‘지도자 측’의 비판의 요지는 매음, 사치, 허영 등 주로 ‘여성’의 ‘타락’ (“여학생들이 밤에 매음을 하는 수가 있다는데”, “부산에 처녀 없다 동정 없다 이러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것은 ‘청년’의 ‘윤리적 일탈’로 비

1) 이 좌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생활영위의 고민과 여성의 타락. 2. 청년의식에 대한 현상적 분석. 3. 애정문제 성윤리 및 결혼 4. 남성판단의 척도와 여성의 자립 5. 사조상의 고민과 그 해결의 모습 6. 고민청년의 사적 관건과 평일의 세계 (『문화세계』 2호, 53년 8월)

화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청년'이 당면한 문제들은 기실 여성의 윤리적 일탈에만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상황이니 '용기'를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라는 지도자 측의 당부에 '청년 측' 패널이었던 김정태는 "모탈"의 문제는 "청년들의 고민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궁하다보니까 사회적인 위치랄까 발언권 교섭력까지 상대적인 차례로 떨어져" 가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기성세대들이 비판한 '청년의 문제들'은 '윤리'나 '세대'가 아닌 계급과 계층의 문제, 즉 '가난'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 '가난'의 문제가 '윤리'와 '여성', '청년' 등의 문제로 환치되면서 담론 장 바깥을 부유하는 광경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할 것이다. 전후 한국사회가 경제적 성장/발전을 통하여 근대화를 이루고 가난을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있었음을 떠올려보면, 국가적으로 일소해야 할 '빈곤'의 문제가 '젠더', '세대', '윤리' 등을 주어로 하여 발화되는 이와 같은 상황은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빈곤'을 '젊은 여성'의 '윤리'의 문제로 덧씌우는 당대의 특정한 시각을 역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전후 생산과 재건의 기획 아래 '노동'과 '빈곤'이 '젠더', '세대'와의 연쇄 속에 의미화 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노동'의 문제를 함께 살피는 것은 빈곤의 타자화가 '노동/자'를 주체로 하는 '노동윤리'를 핵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에게 한국전쟁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계기로서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 문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초점화 할 필요가 있다. 전시기 대다수의 남성이 군사동원과 노무동원의 명목으로 착출된 상황에서 많은 수의 여성들은 생계를 부양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²⁾ '가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2) 전쟁기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직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전쟁직전인 49년 35.6%에서 51,52년 각각 47.6%, 44.6%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체 여성인구 가운데 직업을 가진 여성을 보면 51년 63.7%, 52년 58.4%로, 14세

이 시기 생산된 여러 텍스트들 속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양공주’, ‘억척어멈’ 등 문제적인 형상으로 등장하며, 미국식 서구화로 대변되는 ‘근대화’가 동반한 타락과 부패(와 그로 말미암은 불안과 공포)를 예증하는 표상으로, 또는 ‘근대화’의 기획에서 배제된 주변인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엘리트 여성들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들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근대화가 낳은 서구화에 대한 욕망을 마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자인해야 했다. ‘자유부인’, ‘아프레겔’ 등의 표상은 근대화가 젠더, 계급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표상들이 모두 강력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자장 아래 놓여 있는 동시에, ‘가난’이라는 ‘생존’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윤리적 타락’은 ‘가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또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작동 아래 탄압받고, 규제되었으며, 때로는 구제되었다. 전후 텍스트들 속에서 저학력의 가난한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들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윤리의식을 재단 받으며, 서사 바깥으로 밀려나간다. 이들은 ‘재건’, ‘생산’ 등의 ‘대업’으로부터 당연히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대업’을 가로막는 방해꾼 등으로 형상화 되곤 했다. 이들의 ‘윤리적 일탈’은 별다른 맥락 없이 자극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속에서, ‘빈곤’의 문제는 자취를 감춘다. 전후 생산된 텍스트들 속에서 여성이 재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수준 논의가 진척된 바 있다³⁾. 그러나 논의의 대부분은 근대화와 가부장제 이데올로

이하의 여성을 제외한다거나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 14호, 2003, 253쪽.

3) 최근 10년간 ‘양공주’, ‘아프레겔’ 등 50년대 문학에서 재현된 여성의 표상을 연구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은하,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2003;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3, 2003.; 김연숙, 『국가의 경계에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몸, 시각 쟁점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2005; 김은하, 『매체와 여성 문학, 여성 문화: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겔(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

기라는 두 가지 틀에 한정하여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 성애화 되는 동시에 타자화 되는 여성 재현에 '빈곤'의 정치가 가로놓여 있음을 놓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정비석의 연재소설 『민주어족』⁴⁾을 대상으로, 50년대 대중 서사에서 배경화 되는 여성인물들을 분석하고, '빈곤'과 '젠더'가 서사에 개입하는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대중소설은 대중의 소비를 바탕으로 전략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 및 전략을 그대로 반영, 추수, 선도하는 등 당대 사회의 중요한 지표를 제시⁵⁾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욕망과 욕구를 선도적으로 재현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 정비석은 당대 사회의 풍속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바탕으로 대중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구현한 작가로, 이러한 대중/신문소설의 특수성을 동세대 어느 작가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의 담론을 적극 수용하고 다기한 사회적 의제들을 서사에 적절히 배치하여 대중적 담론을 구성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으며⁶⁾, 대중독자에 대한 '계몽의 식'⁷⁾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으로도 목소

문학연구』 16, 2006. ;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 2006. ;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17, 2007. ;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 18, 2007 ; 황혜진, 『1950년대 한국영화의 여성 재현과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18, 2007. ; 유지영, 『전후 멜로드라마 영화에 재현된 '아프레 걸' : '범죄'와 '고백'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9. ;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思想界를 읽다 :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2009. ; 정재립, 『1950 - 60년대 소설의 '양공주 - 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 2012

- 4) 『민주어족』은 54년 12월 10일부터 55년 8월 8일까지 22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본고에서는 『정음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주 텍스트로 하였다. 이하 쪽수만 표기.
- 5)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 『대중서사연구』 9호, 2003, 259, 260쪽.
- 6) 이선미는 정비석의 신문소설이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장'으로 기능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 『대중서사연구』 26호, 2011.
- 7) 강진호는 정비석의 작품에서 목격되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과도한 계몽성

리를 내고 있었다. 정비석이 54년부터 55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한 소설 『민주어족』은 이데올로그로서 정비석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작품이 생산현장을 배경으로 당대 ‘노동’의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노동자’의 형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작 『자유부인』과 달리, ‘노동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긍정적인 여성상을 창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본 논의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민주어족』이 형상화하고 있는 ‘노동/자’ 표상을 전후 노동/자 담론 및 정책과 연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 같은 노동/자 형상이 젠더, 세대와 관련 맺는 양상을 살피고, 이 속에서 여성의 노동과 빈곤이 타자화 되는 면면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당대 ‘재건’-‘생산’ 담론이 ‘빈곤’의 문제를 젠더화 하는 양상을 논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빈곤’을 경유하여 이들 여성 표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또한 근대화 기획 아래 계급, 젠더, 가족이데올로기가 절합하는 양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50년대 ‘산업전사’의 초상

정전을 전후하여 담론 장에는 ‘노동’에 대한 숭한 담론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노무동원을 포함한 전시기로동원의 문제점, 노동쟁의와 투쟁, 근로기준법의 제정 등이 주된 이슈였다. 이 중에서도 노무동원의 문제는 이 시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는데, 도시 빈민층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전시기로동원법”은 53년 7월, 정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자유계약제로 전환되는 55년 5월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시기 군사동원과 노무동원의 비체계

에 대하여,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거리감을 회복하지 못한 전후문학의 독특한 특성을 암시한다고 파악한 바 있다. 강진호, 「전후 세대와 소설의 존재방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3권, 2000.

성과 강제성에 팽배해 있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시행상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전시체제 하에서 형성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유층, 권력층에 대한 분노를 한층 격화시키게 된다. 동원기간이나 보수가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주로 농촌이나 도시 빈민층 등 일반민중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부유층, 권력층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피하는 일이 많았던 까닭이다.⁸⁾ 53년과 54년의 신문들은 연일 노무동원의 폭압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근로대중의 고충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촉매로 하여 최저임금, 노동시간 엄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점차로 힘을 얻기 시작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자각은 곧 파업 등 노동자들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국가 재건을 위한 생산증강에 힘을 쏟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에게 노동운동은 무엇보다도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앞선 51년 12월 발생한 조선방직쟁의를 통해 경험했던 바이기도 했다. 이 당시 사장 퇴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 되자, 이듬해 3월 대한노총 위원장 전진한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자유권을 찾기 위하여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하는 동시에 이 실정을 "국제자유노련 유엔노동기구 미국 ASL CIO 영국노동회의 불란서노동총동맹"에 호소할 것을 선언한다. 바야흐로 노동 문제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에 응하며,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한다.

조선방직회사에 대해서 아직도 다소간 시비가 있는 모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공업과 정당운동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니 만일 정당에서 각 공장과 생산기관을 붓잡아가지면 거기서 나는 돈을 가져다가 정당운동하기에 바빠서 공업을 다 결단내놓을 것임으로 어떤 생산기관이나 특별히 정부소속

8) 이입하, 『한국전쟁 전후 동원행정의 반민중성』, 『역사연구』 제 12호, 2003.

인 공장을 어느 정당에서든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생산기관’의 조직원들이 일으킨 분규에 대한 엄중 경고로 이루어져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야말로 이 정권이 가장 우려하던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해방, 전쟁, 분단을 거치며 정치투쟁의 과정에 동원되었던 근로대중들은 체제유지와 정권장악에 있어 상당한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담화 발표와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구타와 대대적인 검거가 이어지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노동쟁의는 막을 내리게 된다. 대한노총은 이를 계기로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승만과 자유당에 철저하게 예속된 관제단체로 전략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 공포된 집단적 노동관계법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입법은 표면적으로는 조선방직쟁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으나, 이승만 개인의 1인지배체제내로 기층의 근로대중들을 포섭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타협의 결과물⁹⁾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이승만은 노동관계법을 입법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빈약한 노동조합”¹⁰⁾을 통해 기층노동자를 국민으로서 적극 포섭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무렵 이승만은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신당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자유당’을 조직하고,¹¹⁾ 노동자를 겨냥한 담화를 수차 발표한다. 이승만의 발화는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노동자층에 즉각 전달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대한노총에 유시를 보내 구체적인 활동

9) 유혜경, 『이승만정권시기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 단독정부수립후 1953년 노동법제정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 27호, 2009.6, 147쪽.

10) 이는 당시 국제연합(UNCACK)의 권고(“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빈약한 노동조합이야말로 공산주의를 양성하는 기반이 된다”)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유혜경, 앞의 논문, 134쪽.

11) 이승만이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정당의 이름은 ‘노농당勞農黨’이었다.

방향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승만과 대한노총의 관계는 노동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다. 대한노총의 핵심 노조 중 하나인 '경성전기'의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월간 노동 잡지 『노동』¹²⁾을 발행하여 노동조직의 강령을 유포하고 있었는데, 대한노총 최고위원이었던 정대천이 발행인이었던 이 잡지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지배 권력의 담론전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담론 장의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을 “산업전사”로 호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산업전사’는 해방 직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편됨. 이하 ‘대한노총’)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와 세력 다툼을 벌일 당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였는데¹³⁾, 전시 상황이 ‘전사’라는 기표에 상징적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5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재생산된다. 이 담론 아래 노동자들은 산업시설을 재건복구하는 국가적 임무를 소여 받은 애국의 전사로 표상된다. 나아가 이들은, “농장에서 혹은 공장에서 단 하나의 목적인 통일성전완수를 위하여 각자의 맡은바 직책을 다하고 있”¹⁴⁾는 ‘동지’로, 또 “일선에서 총칼을 메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는 추위 더위를 가리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증공 오랑캐와 싸우고 계시는 오빠와 아저씨들”¹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2선의 용사’로

12) 경전 노조는 정부에 종속되어 있던 대한노총의 핵심 노조 중 하나였고, 위원장 정대천은 자유당 국회의원인 동시에 대한노총 최고위원까지 역임했다. 발행인이었던 정대천은 권두언을 통해 『노동』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정은은 이러한 『노동』의 체제대변적 성격에 주목하고, 『노동』을 통해 정부인사, 이승만에 의해 임명되는 경전의 사장과 간부, 대한노총 간부에 의해 발 언되는 노동 지배 담론을 살펴본 바 있다. 이정은, 『1950년대 노동 지배 담론과 노동자의 대응』, 『역사비평』 통권83호, 2008.

13) 맡으면서 강령과 규약이 수정되고, 노총가를 만들었다. 채규항이 기초한 노총가의 후렴은 “우리들은 산업전사 강철같이 단결하여”라고 하여 노동자를 산업전사, 생산전사라고 불렀다. 이임하, 『해방 뒤 국가건설과 여성노동』, 『역사연구』 제 15호, 2005.12, 47쪽.

14) 박효원, 『우리는 제2선의 용사』, 『노동』, 53년 6월.

15) 김영옥, 『노동』, 53년 6월.

의미화 되었다. ‘산업전사’ 담론은 ‘노동이 곧 애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노동자들의 “땀의 보국열”¹⁶⁾을 강조하며, 효과적으로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산업전사’ 담론은 노동자를 ‘반공전사’로서 조형하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 전쟁의 세력화를 경험했던 바, 노동자를 위한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정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 ‘반공’ ‘노동자’의 표상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터다. 전쟁을 지지했던 다수의 노동자층이 남한에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하여 ‘참된’ ‘노동자’를 명명하는 작업이 긴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한노총은 55년 5월 노동절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낭독한다. “1. 우리는 공산침략자와 타협할 수 없으며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강조한다. 1. 우리는 세계민주우방이 자유중국을 계속지지하며 금문, 마조도를 방위할 것을 주장한다. 1. 북한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동정하여 구출하라.”¹⁷⁾ ‘반공결의’에 가깝게 읽히는 이 결의문의 행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노동자 국가를 자임하는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민주우방’으로의 편입에 대한 욕망이다. 더 나아가 59년, 이대통령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한 것은 공산당들이 노동자들을 다 묶어서 공산당을 만드는 데 힘쓰기 위한 것이며 또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라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천명한다. 이처럼 ‘공산주의’와의 거리두기는 강박에 가까운 형태로, ‘산업전사’ 담론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반공전사’ 담론은 노동 정치세력을 무력화하고, 노동운

16) 『동아일보』, 54.5.1

17)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공산침략자와 타협할 수 없으며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강조한다. 1. 우리는 세계민주우방이 자유중국을 계속지지하며 금문, 마조도를 방위할 것을 주장한다. 1. 북한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동정하여 구출하라. 1. 에프 오 에이와 영쿠라의 원조사업이 급속히 실현되어 공장의 건설이 완성되기를 바라며 소비물자도입을 반대한다. 1.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를 주장한다. 1. 현실적인 노동법을 제정하라. 1. 노동행정의 공정을 기하라.

동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방기 전평의 노동운동은 이 시기 노동 담론 상에서 '공산괴뢰집단'의 난동으로 요약되곤 했는데, 여기서 추출된 '노동=생산', '파업=파괴'라는 프레임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동운동을 가장 손쉽게 탄압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공산당들이 노동자들을 시켜서 동맹파업을 하게 하며 모두 파괴해서 저의 나라를 결단을 나게 만들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려는 공산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다 제정신을 가지고 제나라 백성과 제 권리를 찾아"18)야 한다는 식의 '반공' 논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동맹파업'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축소시켰다. 이것을 이론화 한 하나의 형태가 '노자협조론'이다. 정부와 대한노총은 일찍부터 생산력 증강과 국가 발전을 위한 '노자협조'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생산 협동체로서 기업가와 노동자가 합치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노자협조론'19)은 휴전을 지나며 몇 갈래로 분화되는데, 그 하나의 갈래가 다음과 같은 형태였다.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여기에 노자간의 이해의 일치정도가 아니라 실로 동생동사의 공동운명적이고 절대적인 처지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공산주의자와의 투쟁이란 문제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공산당에게 패배하고 보면 노동자는 물론 특히 기업주의 처지가 어떻게끔 된다는 것은 여기 구구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주가 오직 공산주의를 타도하므로써만 살수

18) 『이대통령, 첫노동절에 치사』, 『경향신문』, 59.3.10

19) '노자협조론'은 정전을 전후하여 굴절을 보이게 된다. 이정은에 따르면, 초기 노자간의 관계를 탈계급적으로 규정하고, 생산협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노자협조론은 53년 후반 이후 현실의 계급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자본의 이윤 증대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논리가 강화된다. 이처럼 생산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중시하는 운영합리화론으로 이어진다. 이정은, 『1950년대 노동 지배 담론과 노동자의 대응』, 『역사비평』 통권83호, 2008.

있다는 것이 체언할 필요조차 없는 이상 그의 운명은 완전히 전술한 반공자 유노동운동의 성쇠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론이야말로 우리가 여기서 노자간의 공동운명을 지적하게 된 어엿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²⁰⁾

‘노자협조’를 “절대적인 명제”로 제기하고 있는 이 글에서 필자 김대중은 ‘노자협조’가 반공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처지’라 언명한다. 노동자-자본가의 관계는 고용-피고용의 수직관계도, 계급관계도 아니며, 생산공동체의 관계도 아니다. 노-자는 동생동사의 공동운명체로 비화되는 동시에, 국가의 운명과 등치된다. 그리고 노-자-국의 삼위일체는 위계를 지우고, 노동/자의 문제를 비가시화의 영역 안으로 몰아넣는다. 당시 노동 담론장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했던 ‘노자협조론’은 이러한 지점에서 ‘반공’과 접맥하고 있었다.

3. 생산담론과 ‘근로대중’의 형성

이러한 노동담론의 지형 아래 정비석은 『한국일보』에 ‘노동/자’를 주제로 한 한 편의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자유부인』의 예상치 못했던 성공 이후 야심차게 시작한 연재였다. 연재에 앞서 정비석은 “의무와 권리가 질서있게 수행될 때에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므로 국민 각자의 그에 대한 노력은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기도 할 것”이며, “나는 이번 소설에서 애국심에 불타는 몇 사람의 그러한 노력을 그려볼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²¹⁾ 연재가 마무리된 이후 정음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서문을 보면, 정비석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자신을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민주어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았다”²²⁾

20) 김대중, 「노조는 유해한가-기업주 남전의 간섭을 보고-」, 『동아일보』, 55.10.30

21) 『한국일보』, 1954.12.4.

22) 정비석, 『민주어족』, 정음사, 1955.

고 설명한다.

작가의 설명에서도 짐작되는 바, 『민주어족』은 정비석이 어느 소설에서보다도 강한 계몽의지를 전면에 드러낸 작품이었다. ‘민주어족’이라는 제목 또한 작가의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민주어족’의 형상화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목적은 여러 논자가 지적한 바 있듯이²³⁾,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애국심’, ‘신념’, ‘충실’ 등의 모호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서문에서도 드러나듯, 정비석에게 ‘민주주의’는 구체성을 담지하지 못한 채, 이상화된 추상적 가치로만 의미화 되고 있었던 까닭이다. 실제 작품에서 역시 ‘민주주의’의 기표는 어떠한 ‘긍정성’을 확인시켜주는 수사로서 외에 다른 기능을 못 하고 있었다. 애정 서사가 진행될수록 등장빈도 또한 줄어들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용하고 무의미한 듯 보이는 ‘민주주의’의 기표는, ‘反민주=공산’을 축으로 한 당대 노동/자 담론의 여실한 반영이라는 점에서 실제성을 획득한다. 『민주어족』의 저변에 놓여 있는 것은 노동을 곧 애국으로, 또 ‘민주주의’의 실재태로 호명하는 ‘산업전사=반공전사’ 담론이다. 텅 빈 ‘민주주의’의 기표는 정비석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당대 노동/자 담론이 ‘민주주의’를 ‘반공’의 수사로서 전유하는 특정한 방식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기실,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장구한 애정서사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축은 ‘생산’ 담론이다. 작품 속에서 영란에게 ‘남성’에 대한 애정은 ‘국가’에 대한 그것과 등치되는데, 이 둘을 매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산’이다. 영란이 박재하와 홍병선에게 애정을 느끼는 순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3) 정중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 1940~19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Vol.35, 2008. ;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 『대중서사연구』 26호, 2011. ; 이선미, 『한국문학 속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 “정치 혐오”의 문화적 기원과 신문소설의 여론 민주주의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Vol.58, 2013

영란은, 무뚝뚝한 그 청년이 우리 나라 ‘아르마이트’ 생산계에서 것처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이욕을 탐내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가 소신하는 바를 향하여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는 그 청년이 한없이 거룩해 보였다.

청년도 청년이지만, 영란은 박재하라는 인물에게도 새로운 존경심이 느껴졌다. 성인이 능지성인이라는 격으로, 홍병선이라는 청년에게 맘대로 연구할 시설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될 일이기 때문이었다.(80)

간단히 말해, 두 남성에 대한 영란의 애정은 ‘생산’에 투신하는 개별주체의 거룩함에 대한 매혹인 동시에, ‘생산’ 그 자체의 숭고함에 대한 경도였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생산’의 중요성은, “요컨대 국가가 흥성하려면 생산기관이 발달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며, “1에도 생산, 2에도 생산”을 강조하는 박재하와 홍병선의 대사를 통하여, 서사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자주,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재하와 영란의 사랑이 좌초된 것에도, 홍병선과 영란이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에도 ‘생산’ 담론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박재하는 영란에 대한 고민으로 사업과 관련한 약속을 어기게 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사업적 활동력”과 “사업적 수완”에 매료된 영란에 대한 사랑을 끝내 뿌리치고야 만다. 국가재건에 봉공하고자 하는 욕망(혹은 사명)과 애정은 익숙한 공/사 분할을 통하여 위계화 되고, 박재하는 사적 욕망의 포기를 통하여 공적 자아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실의에 빠져있던 영란은 박재하가 구속된 후, 사장 자리를 위임 받아 공장을 대리 운영하는 홍병선의 ‘활동력’과 ‘결단력’에 매혹을 느낀다. 이 과정을 지나며 ‘소년’과 같이 보였던 홍병선이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매우 징후적인데, 이 장면에서 ‘생산’의 거룩함 앞에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주인공들은 생산의 동지로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동시에, 생산의 주체로서 성장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²⁴⁾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작품이 이러한 ‘생산 담론’을 통해 ‘근로대

중'을 조형하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작품은 “근로와 생활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직업’과 ‘노동’에 대한 찬미는 곧 ‘근로대중’이라는 특정집단을 호출하고 있었는데, 작품 속에서 수차례 거론되는 ‘근로대중’은 배영환, 김은애 등 ‘반민주어족’을 대타항으로 하여 주도되고 있었다. 예컨대, 좁은 룸에서 요리와 디저트를 먹고 여자를 희롱하는 등, “유한계급” 배영환을 통해 제시되는 ‘귀족’적 삶의 양식은 택시 타는 것을 허영이라 생각하는 “걸어다니는 대중” 흥병선의 그것과 대칭한다. 이러한 계급격차에 대한 의식은 ‘댄스’의 향유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댄스 자체가 부르주아의 오락”이라는 배영환의 이야기에 영란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한계급만이 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실상 댄스라는 것은 근로대중의 테크류우손(건전오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하루의 근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날 하루의 피로를 푸는 동시에, 내일의 활동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서 댄스를 한다면 그것을 퇴폐적이 아니라, 크게 건설적”이라는 이야기였다. 표면적으로 댄스의 건전성을 주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란의 주장은, 실은 근로대중의 “긴장된 생활”을 찬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락’을 근로를 위한 ‘여가’로 배치함으로써, ‘근로’를 주축으로 하여 대의에 복무하는 삶을 찬탄하는 강영란의 논법 아래, 개별주체의 욕망들은 모두 ‘생산’을 향한 것으로서 재배열되며, ‘근로대중’의 삶은 ‘국가’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작품 속 ‘근로대중’ 담론에서 ‘근로’가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면, ‘대중’²⁵⁾은 엘리트, 정치가 등 ‘특수계급’이

24) 이와 더불어 ‘생산역군’들이 나라를 위해 주야로 스스로를 희생하는 ‘공장’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현하는 공간(“영란은 ‘민주주의가 여기에 있었구나!’하는 감명이 절실했었다.” (81))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한국사회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후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두 가지 과제가 ‘민주화’와 ‘산업화’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서사의 주된 배경을 ‘민생 알루미늄 공장’으로 설정한 작가의 선택이 흥미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불리는 계급을 그 부정태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급 차이는 작품 속에서 취미 등을 통한 삶의 양식의 차이로 구현되고 있었는데, 이는 즉, ‘근로대중’의 형성에 ‘대중적 삶’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근로대중’의 문제는 홍병선과 강영란의 대화 속에서 주된 이슈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이 둘은 ‘근로대중’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영란은 ‘엘리트’ 홍병선의 ‘대중적 취향’에 대한 몰이해를 교정하여 ‘대중’에 대한 감각을 주지시키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박재하와 강영란이 유사 사제관계로서, 강영란이 박재하에게 일방적으로 교화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과 비견하여 볼 때, 홍병선과 강영란은 ‘연대’를 통한 ‘근로대중’의 견인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애정관계 또한 동지애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된다.

그러나, 박재하가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의 충돌로 고뇌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홍병선이 그 대리자로서 연애와 사업 모두에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결말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세대론적 관점의 이해가 요청된다. 작품 속에서 박재하의 고뇌는 ‘사장’, ‘아버지’, ‘중년의 남성’이라는 항들과 긴밀하게 얽혀있고, 이러한 문제들로 수차례 행위는 지연된다. 다시 말해, 연대가 불가능한 ‘구세대’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그는 홍병선과 다른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작품에서 박재하는 중년의 무기력과 우울을 자주 드러내면서, “청춘에 대한 금지”(258), “청춘의 약동”(241)으로 묘사되는 ‘청년’ 홍병선과 강영란과 대응한다. 요컨대, 강영란이 박재하가 아닌 홍병선을 택하게 된 것은 그가 ‘청년’이기 때문인데, 한편 이 점은 전

25) 이것은 일면, 정비석의 ‘대중’에 대한 관점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정비석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써나감으로써 일반 독자로 하여금 문학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쓰려는 것”을 자신의 신문연재 소설관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비석은 신문소설 창작에서 독자 대중에 대한 고려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몽성’과 ‘대중성’에 천착하였는데, ‘근로대중’ 또한 소설을 통한 대중 계몽의 연장선 아래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 '근로대중'의 형상이 식민지기 '청년' 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근로대중'이 포괄하고 있는 '세대'라는 분할선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이 결국 박재하-홍병선을 통하여 강력한 가부장을 추동하는 영웅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들²⁶⁾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서사의 말미에서 사장의 부재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장을 구해내는 것은 역시 한 사람의 '가부장'으로, 민주적 공간으로 구현되었던 '민생 알루미늄 공장'의 획일주의와 전체주의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비석이 발화하는 '민주주의'가 식민지기 직분의 윤리, 동원체제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곤란하나, 이 점만을 강조할 경우,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전후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진다. 이 점은 오히려 전시 체제 이후 '노동' 관련 담론들이 등장하였던 당대 문맥 하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정비석이 조형해 낸 '근로대중'의 형상은 노동조합법 입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노조의 정치화를 관리 통제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의 근로대중 정책과 조응하고 있었다. 숙련된 노동자를 무단 해고하고 인상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일어났던 조선방직쟁의와, 홍병선의 지휘 아래 생산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공장 노동자들 전원이 봉급을 자진 체납하고 원료를 구입하는 장면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작품 전반에 넘쳐나는 '노동'의 찬미는 동원과 착취를 매개로 '노동/자'를 '국민'으로 소환하는 국가의 폭압성을 교묘하게 은폐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대중의 정치적 역능은 작품 속에서 '노동'과 '생산'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근로대중'의 형상 아래 무화되고 만다.

26) 이선미, 앞의 논문; 정종현, 앞의 논문; 안미영, 『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 고찰 - 『청춘의 윤리』, 『애정무한』, 『민주어족』, 『에덴은 멀다』를 중심으로 -』, 『개신어문연구』 21호, 2004.

4. 여성의 노동 배치와 빈곤의 젠더화

그렇다면, 작가가 주조하고자 했던 ‘근로대중’ 담론 하에서 여성의 노동이 배치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어족』은 정비석의 작품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노동하는 여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영란을 비롯,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작품에서 긍정적인 여성주체로 평가되는 영란은 수동적일 뿐 아니라, 남성의존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결국 이 작품은 강영란이 남편감을 찾은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강영란에게 직업이나 생산의 문제는 진정한 남편감을 고르기 위한 조건으로 다루어진다. 애정 문제로 곧잘 직장을 그만두는 강영란을 끌어주는 것 역시 언제나 남성이다. 그보다 문제적인 것은 영란의 성품으로 제시되는 지성적이며 주체적이고 현대적인 ‘민주여성’으로서의 면모가 행위나 성품을 통해 드러난다기보다는 여타의 여성 캐릭터들을 타자화 하는 방식을 통하여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련의 부정항들을 통하여 긍정성을 부여받는 셈이다. 예컨대, 강영란의 ‘지성미’는 육감적으로 묘사되는 여성들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서만이 증명되며, ‘현대성’ 역시 다른 한 축에 봉건적인 여성상을 대립항으로 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요컨대, 『민주어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긍정적인 여성 노동자상’의 내용은, 부정적인 가치들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부정적인 가치들을 구현하는 여성들의 형상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당대 관념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을 몇 갈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한 축에 ‘노동’하지 않는 ‘자유부인’ ‘유한마담’ 김은애가 있다면, 다른 축에는 미망인 영희가 놓인다. 김은애가 “그릇된 민주주의와 그릇된 남녀 평등의 희생물”(308)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관념을 잘못 전유한 여성을 표상하고 있었다면, 미망인 영희는 전근대적인 ‘부덕’을 지닌 봉건적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립된다. 두 캐릭터 모두, 당대 서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여성형상의 전형성을 답습하고 있는데, 작가의 관점에서 양자는 모두 근대화를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여성'으로서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부류로 타이피스트 고순례와 여직원 장현옥이 있다. 이들은 배영환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면서, 배영환에게 정복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성적으로 희롱을 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키도 날신한 것이, 현대여성으로서는 조금도 손색 없는 체격”(98), “하얀 목덜미”(99), “보면 볼수록 난숙한 육체”(327) 등, 작품 속에서 이들에 대한 묘사는 오직 육체성을 담보로 한 섹슈얼리티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배영환의 유혹에 농락 당하거나(고순례), 자발적으로 그의 애정 문법을 받아들이면서(장현옥) 배영환과 관계를 맺는다. 배영환이 강영란에게 청혼을 하면서도,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고순례와 장현옥을 차례로 ‘정복’하는 일화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이 ‘결혼’과 ‘애정’을 빌미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몇 가지 문법들을 보여준다. 장현옥과 고순례는 선물을 선사하며 애정의 답례를 요구한다거나, 요리집 작은 방에서 희롱을 하는 등 배영환이 구사하는 코드화된 ‘성애’의 문법에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너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연애’의 언어/문법을 통어하는 남성에게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거나, 이 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성애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만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이 타자화 되는 ‘연애’의 논법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들이 배영환의 ‘돈’과 ‘권력’을 매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저변의 조건이다. 이들이 이처럼 배영환에게 쉽사리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노동 지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여학교 정도를 나와 가지고 직업전선에서 사오년 부땃긴 여자”로, 대학을 나온 영란과 대비되는 저학력 노동자로 그려진다. 이 시기,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면, 작품에서 이들을 저학력 의 주변화 된 존재로 서술하고 있는 지점은 근로대중 담론이 학력이라는 구획을 통하여 여성 노동자를 포괄하는 경계를 드러낸다

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다. 서사 내에서 배영환의 ‘귀족적 취미’는 이들 사이에 가로놓인 계급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유혹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지는 저임금-단순-미숙련 산업인력으로 노동시장에서도 주변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노동자의 위치를 상기시킨다. 작품 속 근로대중의 담론에서도 사무직 여성이었던 이들의 생계유지형 노동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저학력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언제나 후경화 된다. 이 서사에서 ‘생산’의 바깥자리에 놓인 여성들은 비루하고, 무기력하며 순진한 형상으로 그려지는데, 이들을 주변화 하고 있는 핵심의제로서 ‘빈곤’의 문제는 미미하게 드러난다.

‘빈곤’이 가시화되는 것은 오직 여성이 ‘사회의 결함’을 보여주는 은유로서 이야기되는 경우일 때이다. 이 서사에서 ‘가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는 미망인 영희이다. 전쟁미망인 영희는 시댁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만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없는 형편으로, 편물 뜨기를 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영희의 노동을 두고, 시어머니는 사내 옷을 뜯다며 영희를 매도하고, 동생 영란은 ‘직업’을 가져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며 취직을 독려한다. 가내 노동은 ‘근로’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실제로도 빨래나 삶바느질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택한 노동은 이처럼 정당한 근로/노동이 아닌 ‘소일거리’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²⁷⁾

미망인이 처한 문제는 한편, ‘여성’ 일반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작품 속에서 가계곤란과 시댁으로부터의 모욕으로 고통 받는 영희의 불행은 “여성 전체의 공통적인 운명”(214)으로 비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희의 빈곤과 고통은 또한 결혼 제도의 부당성과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미망인’의 ‘빈곤’을 ‘여성’과 ‘사회’의 문제로 추상하는 이러한 논리는 ‘빈곤’이 놓인 구체적인 맥락을 삭제함으로써 ‘빈곤’을 젠더

27)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 14호, 2003, 262, 263쪽.

화 하고, '여성'을 타자화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이러한 논법 아래 '가난'은 여성의 모습으로 '육화'되고, 여성 일반은 동정과 규제, 구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우울, 퇴폐, 무기력 등의 부정성의 표징 또한 덧입혀지게 된다. 영란의 '건강성', '명량함'과 대비되는 영희의 '가난'과 '우울'의 정조는 이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시댁의 계략으로 무수히 고통 받는 미망인 영희의 수난사는 신과적인 서사 속에서 '피해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강하게 각인 시킨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흥병선의 경우 그의 계급적 위치는 오히려 일종의 '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헤진 옷가지와, 택시를 탄 경험이 없는 일화 등에서 드러나는 흥병선의 계급적 위치는 배영환과 대조를 이루며 그의 '천진성'과 연구자로서의 진중함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요컨대, 정비석이 발화하는 '근로대중'이란, 가내 노동을 하는 미망인 여성과 같은 존재들을 배제함으로써 조형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흥병선으로 대표되는, 생산의 본령을 담당하고 있는 고학력 남성이 있었던 것이다. '엘리트'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근로대중' 담론은 생산과 발전을 위해 몰아내야 할 '가난'이 이처럼, 여성의 몸을 통하여서 타자화 되면서, 동시에 남성의 '도덕성'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가 되는 역설을 보여준다.

'빈곤'의 젠더화 양상을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미혼모의 사례이다. 작품에서는 오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영아살해사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아내 있는 남성에게 애정 사기를 당한 열아홉살의 처녀가 해산 후에 영아를 죽여 버린 사건이었다. 자식을 죽여버린 죄악은 중대하나, 남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방적공장 여자직공의 급료로 다섯 식구를 책임 져야 하는 미혼의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오창준의 판단이었다. 작가는 서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의 소개에 상당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며, 범죄의 원인은 사회의 결함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²⁸⁾ '빈곤'은 이렇듯, 여성의 삶-일상-생

28) 이때, '버림 받은 미혼모'의 모티프는 사실 이 시기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했다. 드물게 엘리트 여성을 주인공으로 가난, 성적 유혹 등 여성이 직면한

활-경험의 형상화를 통해서만 서사에 등장한다. 당대 대중서사 속에서 ‘빈곤’은 ‘여성’의 문제로 집약되며, 때로는 범죄와의 결합을 통하여 불온한 것, 구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5. 나가며

전후 근로대중 담론은 ‘세대’와 ‘젠더’를 중요 심급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근로대중의 정체성은 남성-청년-산업전사로 집약된다. 이러한 형상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체제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의 노동윤리의 전형이다. 공장 노동, 군복무 등의 신체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남성’을 생산의 주체로 하는 노동윤리²⁹⁾는 빈곤의 젠더화, 젠더의 빈곤화에 공히 관여하고 있었다. 가족의 미덕, 가부장의 막강한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윤리에서 여성-노동자는 한정적인 위치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제가 노동윤리가 배척하고자 하는 ‘가난’과의 절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빈곤’을 여성에 덧씌움으로써, 여성을 불온 또는 구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하는 서사들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여야 할 지점은, 가부장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상옥 감독의 동 시기 영화 『어느 여대생의 고백』(신상옥 감독, 최은희, 김승호 주연, 1958)에서는 ‘버림 받은 미혼모’의 모티프가 서사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난으로 고통 받던 여주인공 소영은 신분 사기를 통해 어느 국회의원의 딸로 위장하고 변호사가 되고, 버림 받은 미혼모의 사건을 변호하게 된다. 애정 사기를 당하고 아기를 낳아 혼자 키우던 미혼모가 아기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동창을 찾아갔다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남성이 동창의 남편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모욕에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다. 변호를 맡은 소영은 가난한 미혼모가 겪어온 수난의 삶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며,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너무도 가난했던 것”만이 죄라고 주장한다. 이 작품에서 역시 ‘버림 받은 미혼모’는 사회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회의 비극”으로 그려지며, ‘버림 받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 또한 정비석과 정확히 포개어진다.

29) 지그문트 바우만(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2010, 천지인, 38쪽.

이데올로기와의 연결고리이다. 작품 속에서 고순례, 장현옥 등 미혼의 여성들이 위태로운 유혹과 일탈의 대상으로 그려지면서 '빈곤'의 문제를 비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빈곤'의 젠더화 양상이 노골화되는 것은 미혼모, 미망인 등 “아버지”의 부재를 표지로 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고통은 여성 일반, 나아가 사회, 제도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아버지-국가’라는 강력한 가부장의 영역 아래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근대의 국가가 가부장제에 기초한 경제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덧붙여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은, 이러한 사회 내에서 여성의 빈곤이 담론상의 문제만이 아닌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성이 겪는 실제적 차원의 빈곤은 노동윤리를 축으로 담론화 되는 과정에서 심화되고, 고착화된다.

이처럼, 전후 한국사회는 노동윤리를 체제를 유지하는 원칙으로서 앞선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노동’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까지 부단히 반복재생산 되어온 “경제개발의 영웅서사”라는 특정한 틀을 환기시킨다. 전후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는 고난극복의 영웅담 형식³⁰⁾의 술한 서사 속에서 근로대중들은 한국 경제개발의 주인공으로 의미화 되어왔다. 이러한 개발-남성 중심의 서사는 빈곤의 맥락을 삭제한다. ‘가난’이라는 물질적인 조건은, 『민주어족』에서 그러했듯, 노동하는 남성 주체의 진실성, 덕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그려지면서,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면면을 강조하는 정신주의적인 측면을 강하게 내포한다. 빈곤의 지배 또는 극복 또한 정신적,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화된다. 『민주어족』에서 노동하는 남성주체에

30) 박혜경은 구술생애사 연구를 통해 영웅담으로 수렴되지 않는 ‘빈곤한 ‘여성노동자’의 삶을 재구성한 바 있다. 이 논의는 개별-여성-일상을 재구성하여 전후 경제개발의 영웅서사의 바깥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다. 박혜경, 『전후 경제개발의 영웅서사를 넘어서-1935년 개성 출생 여성의 구술생애사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100호, 2013.

게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자기절제이다. 이들에게 노동이란 곧 도덕적인 헌신이다. ‘노동’ 자체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구하고, 노동자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의 노동윤리에서 빈곤의 해소는 경제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전후 노동윤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하면 된다”는 정신주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원형을 보여준다. ‘가난’의 여성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에서 배경화 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개별자의 일상, 국가로 포섭되지 않는 다종다양한 욕망들 또한 흔적 없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서사 내에는 구체적인 ‘개인’이 삭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서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전후 개발 영웅담이라는 거대 서사를 위반하는 다양한 개별의 목소리들을 역사에 기입하는 일이기도 하다. ‘빈곤’, ‘불온’ 등의 표지 아래 형상화된 여성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정비석, 『민주어족』, 정음사, 1955

『경향신문』

『동아일보』

『노동』

『문화세계』

2. 단행본 및 논문

강진호, 「전후 세태와 소설의 존재방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3권, 2000, 5
~23쪽.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 『대중서사연

구』 9호, 2003, 259~294쪽.

박혜경, 『전후 경제개발의 영웅서사를 넘어서-1935년 개성 출생 여성의 구술생애사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100호, 2013, 374~406쪽.

안미영, 『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 고찰 - 『청춘의 윤리』, 『애정무한』, 『민주어족』, 『에텐은 멀다』를 중심으로 - 』, 『개신어문연구』 21호, 2004, 429~457쪽.

유혜경, 『이승만정권시기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 단독정부수립후 1953년 노동법제정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 27호, 2009.6, 93~151쪽.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 『대중서사연구』 26호, 2011, 111~150쪽.

_____, 『한국문학 속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 “정치 혐오”의 문화적 기원과 신문소설의 여론 민주주의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Vol.58, 2013, 3~26쪽.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 14호, 2003, 251~278쪽.

_____, 『한국전쟁 전후 동원행정의 반민증성』, 『역사연구』 제 12호, 2003, 39~67쪽.

_____, 『해방 뒤 국가건설과 여성노동』, 『역사연구』 제 15호, 2005.12, 33~62쪽.

이정은, 『1950년대 노동 지배 담론과 노동자의 대응』, 『역사비평』 통권 83호, 2008, 152~175쪽.

정종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 1940~19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Vol.35, 2008, 149~195쪽.

지그문트 바우만(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2010, 천지인, 1~240쪽.

Abstract

“The working people” and gendered poverty in 1950s

- Focusing on Jeong-Biseok's Novel “Minjuajok”(1954,1955) -

Sohn, Hye-mi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discourse about “working people” in 1950s. In that time, “working people” has been deployed in many kinds of media.

In the “working people”-related discourse, they are symbolized as “a soldier of industry” who have fought communist, which shows the political strategy of discourse to control them easily. We can see the same kind of discourse about “working people” in the Jeong-Biseok's Novel “Minjuajok”(1954,1955). He considered the “working people” as a young-male-soldier of industry, excluding female labor. The problem is that the politics of poverty is involved in this exclusion. The ‘poverty’ is embodied in the body of female, which shows the way of exclusion female labor in the major narrative like a hard time-overcoming story.

Key words: poverty, the working people, “a soldier of industry”, female labor, Jeong-Biseok.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